h·well 국민건강보험

보건복지부

의료급여 수급권자 · 건강보험 차상위 대상자가 고혈압 등 52개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(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)에 가시면 약값 본인부담이 '약국비용의 3%'로 변경됩니다!



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을 방문하시면, 약값 본인부담은 '500원'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약값의 본인부담 기준을 변경하는 이유는?

-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여,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.

건강보험에서는 '11년 10월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,
의료급여 수급권자는 '15년 11월부터,
건강보험 차상위 대상자는 '16년 상반기에 도입 예정입니다.

경제혁신 3개년 계획 — 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.0 [개방 · 공유 · 소통 · 협력]

찾고 당신의 복지혜택 ·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 · 줄이고 부정수급 — 복지로

쉽고 편한 복지포털 사이트 '복지로' www.bokjiro.go.kr

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